논어 7편 술이 33장 · 원문·풀이

子曰：「若聖與仁，則吾豈敢？抑爲之不厭，誨人不倦，則可謂云爾已矣！」公西華曰：「正唯弟子不能學也！」

독음 · 자왈 약성여인 즉오기감 억위지불염 회인불권 즉가위운이이의 공서화왈 정유제자불능학야

쉬운 풀이(요약) · 성인이나 어진 사람을 자처할 수는 없지만, 실천과 가르침을 싫증내지 않는다고 했다. 제자는 바로 그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답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若 같을 약 약 / 聖 성인 성 성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仁 어질 인 인 / 則 곧 즉 / 吾 자기 오 오

豈 어찌 기 기 / 敢 감히 감 감 / 抑 누를 억 억 / 爲 할 위

之 갈 지 / 不 아닐 불 / 厭 넉넉할 염 염 / 誨 가르칠 회 회

人 사람 인 / 倦 게으를 권 권 / 可 옳을 가 가 / 謂 고할 위 위

云 이를 운 운 / 爾 너 이 이 / 已 이미 이 이 / 矣 어조사 의

公 공변될 공 공 / 西 서녘 서 서 / 華 꽃 화 화 / 正 바를 정 정

唯 오직 유 유 / 弟 아우 제 / 能 능할 능 능 / 學 배울 학

也 어조사 야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